

대규모 도시개발 본격화

순창 순화지구 2022년까지 190억원 투입 주택·공공시설 용지 공급

순창군이 주택 및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확정해 지역 성장·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군은 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북개발공사와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순창읍 순화리 21번지 일원 110,000㎡ 규모에 주택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순창군과 전북개발공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6년간 19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 완료하게 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공공시설 등이 들어 설 수 있는 부지를 조성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부족한 주택 수요 충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순창지역은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주민들이 인근 대도시에서 출퇴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새로운 지역성장을 이끌 거점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날 열린 업무추진 협약식에는 순창군 황숙주 군수와 김종섭 군의회 의장, 장명균 부군수, 한경업 안전건설과장이, 전북개발공사 측에서는 고재찬 전북개발공사장, 최영일 도의원, 양재연 전라기획실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 측은 사업 부지내 관내 공공기관 이전 협조,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원인지부담금 등 조성토지 실사용자 부과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개발공사는 인허가절차 이행, 보상 및 설

계 등 공사 전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양측은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 등도 구성할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이같은 도시개발사업이 알려지면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순창읍 이모(42)씨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구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대규모 도시개발 소식이 들려 기뻐 아주 크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황숙주 군수는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최대 600호 규모의 택지와 공공시설부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다”며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전북개발공사와 협력해 최대한 사업을 빠르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병해충 잡는 ‘무인헬기’

임실 오수면 등 항공방제로 일손부족 해소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오수면 등 5개면을 대상으로 한 1차 항공방제를 집중적으로 전개 중이다.

임실군이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병해충 방제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무인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무인헬기를 통한 공동방제사업은 노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농가인력난을 해소하고, 무더위 폭염 속 농업인을 대신해 신속하게 병해충을 철저히 방제하는 등 지역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오수면 등 5개면을

대상으로 한 1차 공동방제를 집중적으로 전개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동방제면적은 1,504ha로 오수면 615ha, 지사면 434ha, 삼계 365ha, 신덕 99ha, 임실 80ha이며, 무인헬기 10대가 투입된다.

항공방제 일정은 지사면이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이어 오수면(24~27일), 과 삼계면(26~29일), 신덕면(27~28일)순으로 이어지며, 임실읍은 내달 5일로 새벽 5시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단 비가 오거나 기상이

악화되면 연기될 수도 있다.

방제대상 병해충은 벼 수량감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삭도열병과 세균성 벼 알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이파령충, 흑명나방, 노린재, 멸구류 등이며, 분담후기 병해충 종합방제가 실시된다.

농협과 행정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난 해의 경우 지사면과 오수면을 대상으로 시범방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총 사업비로 4억4천5백만원을 투입해 삼계면과 신덕면, 임실읍까지 확대·추진 중이다.

이 중 방제비의 40%는 임실군에서 지원하고, 20%는 오수관촌농협과 임실농협이 부담하며, 농가는 40%를 각각 부담한다.

또한 헬기방제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2,204ha)은 총 3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종합살균제와 종합살충제를 농가에 지원한다.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목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키다리병, 흑명나방 등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사면에 거주하는 이상근씨는 “벼농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농약하는 것이었는데 헬기를 이용해 방제까지 군에서 해 주니 농사짓기가 한결 수월해져서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무인헬기 공동방제를 통해 임실군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시와 성균관대학교,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는 26일 남원시청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장품산업 발전 청신호 커다

남원시 화장품지원센터-성균관대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와 성균관대학교,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는 화장품 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성균관대학교 정규상 총장과 이완주 남원시장 겸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남원시청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균관대학교는 대학원에 바이오코스메틱학과를 신설해 화장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생명공학대학 글로벌 바이오코스메틱 연구센터를 통해 화장품 산업의 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진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대학의 다학제적 접근과 분석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원천 기초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나서고 있는 등 화장품 산업기반을 선

도하는 명문 사립대학이다. 서로의 장점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성균관대학교와 남원시(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포함)는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상생의 협력토대를 구축해 보자는 의지를 굳힌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실천하기로 했다.

앞으로 남원시와 성균관대학교는 지리산권 자원을 이용한 화장품 원료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와 국가 화장품 R&D 사업 공동 추진, 화장품 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시 화장품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여름방학 풍물캠프서 순창농악 배워요”

순창 북흥면 동산초등학교 학생 22명이 26일부터 30일까지 금과들소리전수관 여름방학 풍물캠프에 참여해 순창의 농악을 배우고 있다.

이번 풍물캠프는 전라북도과 순창군이 후원하고 (사)한국국악협회 순창군지부(지부장 조계문)가 진행하는 2017년도 1시간 1교 전복농악 전승학교 운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1시간 1교 전복농악 전승학교 운영 프로그램은 미래의 꿈나무인 도내 청소년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전복농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농악 전수조교와 이수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악기 및 의상 구입비, 교재 제작비, 강사수당, 소품 구입비 및 발

표회 경비 등 총 3,15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4월 순창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복농악 전승학교 희망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북흥 동산초등학교(교장 박진현)를 선정했으며, 5월 말부터 학생 36명이 순창농악 강습교육을 받고 있다.

강습교육은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간씩 진행되고 있고, 열람굿, 길굿, 자진산채, 일체굿, 진풀이굿, 미지기굿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흥진기 강사는 “이번 여름방학 풍물캠프를 통해 더욱 열심히 기량 연마를 하여 사업이 끝나는 11월 초에는 다소 부족한 실력이지만 발표회 공연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

지역 소식통

춘향골 포도 뉴질랜드 수출

올해 베트남 등 60여톤 예정

남원시 주요 수출 농산물중 하나인 춘향골 포도가 남원원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하여 26일 9.5톤을 시작으로 뉴질랜드로 첫 수출을 개시했다.

남원 춘향골 포도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맛과 당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저장성이 강해 2012년 뉴질랜드 남원농특산물 관측행사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계기로 201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뉴질랜드 포도수출점역단자로 지정되어 올해로 네번째 수출길에 오르게 되었다.

춘향골 포도는 섬진강 평야지부터 해발 500m 지리산 고랭지까지 고르게 재배되어 타 지역에 비해 출하기간이 길어 해외수출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남원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선별하여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에인’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대형유통매장 관측행사 및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수출확대를 통하여 포도 재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는 올해 춘향골 포도를 베트남, 뉴질랜드를 비롯해 싱가포르 등 약 60여톤 이상을 수출할 예정이며 대형유통매장 관측행사 및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수출확대를 통하여 포도 재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체납액 징수 강화

관련부서 협조체제 구축

임실군은 2017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일소에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25일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박진두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2016년도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부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개별적 체납원인, 징수 문제점, 징수반 편성 운영, 향후 추진방향 등 관련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군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70%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 검사지역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등록번호 관 련치 압류와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관련부서 협조체제를 유지해 지방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장 신부(Didier l'Ser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